

■ 설 연휴기간 제주관광 중국인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남 일 처럼 시큰둥했던 질병관리본부

도, 일본에 상황 통보... 일본 "관리·발표 대상 아니" "사안 중대성 비해 안이한 판단" 소극 대처 비난 봇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발표도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공조 등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은 중국인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제주를 관광했다. 그리고 귀국한 다음날인 26일 바로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일 제주도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중국 춘추항공사로부터

제주를 여행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제주도는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했지만 본부로부터 "관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주에 현재 머물고 있는 관광객이나 도민 또는 국내 여행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이한 대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은 물론,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방문했다가 전국으로 흩어진 관광객들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

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 중국인의 제주 접촉자 확인은 도내는 물론 국내 전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치다.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발표 기준에 얽매어 적극 대응 기조를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당시 제주 체류 동선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염병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제주도가 확진자 역학 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

이같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선제적 대응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며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는 2~14일로, 중국인 여행객의 제주 방문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제주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마라리어촌계-여객선사 선착장 갈등 선사 "매년 마을회와 공동어장 이용 계약" 어촌계 "해녀 피해 이어져... 별도 보상해야"

국토최남단 마라도를 잇는 여객선사 업체가 마라도 선착장을 이용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마라리마을회와 마을 공동어장 이용 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마라리어촌계가 마을회와 별도로 마을 공동어장 이용에 따른 보상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마을 공동어장 이용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마라도 여객선사 업체 등에 따르면 마라도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는 송악산 1개, 운진항 1개 등 2개 업체가 있다. 이들 여객선사 업체는 마라도 마을 공동어장 내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하기 위해 각자 계약조건에 따라 마라리마을회와 마을공동어장 이용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여객선사 업체는 매년 일정금액을 마라리마을회에 발전기금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마라리마을회와 별도로 마라리어촌계가 여객선사 업체 측에 마을 공동어장 이용에 따른 보상 협의를 요구하면서 여객선사 측이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객선사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마라리어촌계와

마을공동어장 이용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고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최근 마라리어촌계가 마을회와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마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마라리어촌계 측은 그동안 여객선 운항으로 인해 선착장 인근 마을공동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해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졌으며 어촌계 차원에서 보상 협의를 건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라리어촌계에 따르면 마라리마을회는 여객선사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30% 가량을 어촌계 해녀들에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마라리어촌계가 해녀들의 안전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마을회 차원이 아닌 어촌계 차원에서 건의하기 위해 마을회와 별도로 보상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마라리어촌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객선 운항 등으로 해녀들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현재 보상협의를 관련해 계속해서 마을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와 부적절관계 경찰 해임 정당" 고법, 처분취소 청구 기각

불법게임장 업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해임된 경찰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전 경찰관 A(42)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처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업소와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 내 명령을 어겨 그해 7월 해임됐다.

A씨는 B씨가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와 사적으로 만난 행위는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해 제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발길 끊긴 누웨모루 거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인기명소인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차량 장애인전용 몰지각 주차 '여전'

제주시 지난해 8940건 과태료... 전년비 74%↑

제주시 관내에서 매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8779건), 주차방해(126건), 표지위반(35건)으로 2018년 대비 각각 주차위반은 73%, 주차방해는 133%, 표지위반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5133건에서 8940건으로 74% 증가했다.

특히 주차방해행위는 2017년 14건,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차방해행위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라바콘, 의자, 화

분 등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선과 휠체어마크 등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질서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5월부터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

서귀포시 2.3km CCTV 설치

서귀포시는 성판악 입구 주변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까지 약 2.3km 구간이며 고정식 카메라(CCTV) 등으로 단속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24일까지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3~4월 관련 교통시설물과 고정식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뒤 주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로 집중홍보활동에 나서며 5월 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주말 잇따른 화재로 수천만원대 피해

주말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잇따랐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1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46분쯤

서귀포시 위미리 포구에 정박 중이던 레저보트 A호에서 불이 나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 2일 오전 2시11분쯤에는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 수족관에서 불이 나 바다장어 15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48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태윤기자

2020년도 친환경농업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 교육과정**
 - 과 정 명 : 2020년도 친환경농업대학, 과정
 - 모집대상 및 방법 :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농업인 30명
 - 교육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
 - 수강기간 및 강좌
 - 기간 : 2020년 3월 3일 ~ 12월 01일(1, 2학기 총28주)
 - 시간 : 매주 화요일 14:00 ~ 17:50
 - 장소 :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층 대강당
- 교육목적 및 내용**
 -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개념정립과 선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목적
 -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인증제도, 유기재배 기술, 친환경농자재 실습 등 친환경재배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03(월) ~ 2. 21(금)
 - 제출서류 : 본 대학 소정의 입학지원서 1통,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1부, 사진 2매(3×4cm)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1층 친환경농업대학 사무실
- 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핸드폰 문자 통보
- 수수료**
 - 수강료 : 250,000원(원서 접수시 납부)
- 입학식**
 - 2020년 3월 3일(화) 14:00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층 대강당

※ 문의사항 : 친환경농업대학 ☎ 064-754-3321
 ※ 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 제주대학교(http://www.jejuuniv.ac.kr)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친환경농업대학

삼성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2020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2월 8일(토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서귀포칼호텔(다이아몬드홀)
- 대 상 : 삼성여고 동문회원
- 연락처 : 회 장 문영옥 010-7179-0478 사무국장 김미심 010-8661-3892

삼성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문영옥

梁氏 西歸浦市宗親會 新年賀禮 및 定期總會

희망찬 새해를 맞아 종친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씨 서귀포시종친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18:00
- 장 소 : 서귀포 흑한우명품관(축협)
- 신년하례
- 2019년 종친회 증무 및 사업결산 보고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 임원개선
- ※ 연락처 : 회장 양동근 010-3697-0345 총무 양경환 010-2693-3302

梁氏 西歸浦市宗親會 회장 동 근

2020년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연기 알림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사회회는 1월 31일 개최된 2020년도 이사회에서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으로 2020년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종친 제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주시 바랍니다.

경주김씨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 회장 김부일 청년회장 김용수